

넥센타이어(주)

제4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넥센타이어는 2월13일 국내 12월 법인 상장사중 올해 처음으로 정기주총을 개최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올해로 5년 연속 주총을 가장 먼저 여는 회사가 되었다. 본사 교육실에서 주주와 넥센 임원진, 유관기관, 각 언론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호의안 : 제46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의장인 강병중 회장은 제46기 결산 결과 매출액이 2,876억으로 창사최대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각각 320억원, 2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올해는 생산설비 증설로 인한 생산성·수익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의 구조조정, 수출시장 확장 등으로 매출목표를 전년보다 11.3% 증가한 3,200억원, 경상이익은 32.6% 늘어난 386억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HERCULES사 사장단 넥센 방문

지난 3월2일 미국의 HERCULES사 CRAIG ANDERSON 사장외 부사장 STEVEN BUCK씨 및 구매 담당 이사 LOU FONTANA씨가 넥센 공장을 방문하여 현재 개발 중인 ROADIAN HT 및 기타 신제품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2/4분기 이후 사업에 대해 협의하였다.

TIRECO사 부사장단 넥센 방문

지난 3월 9일 미국 TIRECO사의 부사장, JERRY TSENG씨, GARY WANG씨외 2명이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견학하였으며 신제품 개발 현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가졌다. 양사의 방문은 NEXEN으로 사명 변경 이후 처음이며 확장 된 공장 설비와 향후 증설 계획에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넥센 전주 지점 OPEN

지난 1월 15일 넥센 전주지점 이전 개업식이 있었다.
2002년 1월 1일 지점 승격 이후, 전주의 중심지인 덕진동으로 터를 옮겨 이전함으로써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잡은 것이다.

이번 개업식에 전국 지점장과 출장

소장, 대리점사장 등 수많은 축하객이 참석해 전주지점의 발전을 기원해 주었다.

지상 3층으로, 사무실 44평, 창고 303평 등 전체 390평으로 OPEN한 전주지점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해본다.

신 종합정보시스템 종합운영 상황실

넥센 신종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하여 종합운영 상황실을 2004년 2월 23일 오픈하였다.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게 될 계획이며 각 부문별 컨설턴트, 프로그래머, 협업 T/F팀원이 상주하여 최상의 프로젝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

지난 2003년 4월부터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생산일정계획(APS), 생산진도관리(MES), 신개념 지식정보인 넥센포탈시스템(NIP)등의 우수한 솔루션으로 향후 넥센타이어 정보시스템의 근간으로써 자리 매김할 것이다.

2004년 5월 1일에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각 부문 솔루션의 통합테스트를 실시하며 Back-End Data, On-Hand Data를 등록하며 4차에 걸쳐 전국 영업사원 및 본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회원사 소식

한국타이어(주)

한국타이어 새 CI 선포

한국타이어가 새 CI를 선포했다. 기존의 보수적, 전통적 제조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도전과 희망 그리고 비전을 수용하는 상징적 글로벌 이미지로 변신해 한국타이어 63년 역사에 새로운 한획을 그었다. 1년여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한 새 CI는 진취적 사고와 혁신적이고 전문적 기술력, 매니아적 열정, 세련미, 역동적, 국제성을 표현의 기본 전제로 두고 브랜드 개성을 시각화 한 것으로 영국 리서치 스튜디오스의 세계적 그래픽 디자이너 네빌 브로디, 한국의 크로스포인트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타이어는 새 CI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글로벌 스텠다드에 맞는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변화할 것이다.

한국타이어, 세계 9위 자리잡았다

한국타이어가 미국 월간 타이어전문지 '모던 타이어딜러(Modern Tire Dealer)'지 1월호가 2003년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4 글로벌 타이어업체 랭킹'에서 2003년에 이어 9위에 올랐다. 이는 국내 타이어 업체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2003년에 전년보다 8.7% 늘어난 16억2천만 달러(중국 포함)의 매출을 올려 1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일본의 토요를 제치고 9위에 랭크된 것이다. 모던 타이어 딜러지는 전세계타이어산업 동향, 제품 및 신기술 개발 등의

최신 소식을 전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지로 매년 전세계타이어 업체의 매출 자료를 토대로 세계 타이어 업계 순위를 매겨오고 있다. 이 잡지에 따르면 미쉐린, 브리지스톤, 굳이어 등 '빅3'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컨티넨탈과 피렐리, 스미토모, 요코하마, 쿠퍼, 한국타이어, 토요 등의 순으로 세계 10대 타이어사를 선정했다.

한국타이어 제50기 정기주주총회

한국타이어 제50기 정기주주총회가 3월 12일 개최되었다. 한국타이어는 내수 경기 침체로 국도의 소비부진 현상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경영 혁신 활동과 시장 지향적 기업으로의 변신을 피한 결과 2003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이루어 냈다. 2003년 49기 사업실적을 매출 1조 6,769억 원, 경상이익 1,436억 원, 당기순이익 1,015억 원으로 보고하며 2004년 경영목표를 매출액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1조 7,787억 원,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636억 원으로 발표했다.

중국 한영길 사장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한국타이어유한공사 한영길 사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장관상은 중국 내의 투자법인 중 성공적인 운영, 혁혁한 공로와 수출 실적을 인정받아 주 상해 영사관에서 추천해 받게 된 것. 지난 한영길 사장은 2000년 부임 이후 유통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적기의 충설로 단시간 내에 승용차용 시장 M/S 1위 달성을 해냈다. 아울러 중국 타이

어 업계 중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한국타이어, BAT컵 포뮬러 공식타이어로 선정

새 CI로 단장한 한국타이어가 지난 3월 28일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포뮬러 1800의 공식타이어로 장착되어 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내 프로 카레이스인 2004 BAT GT 챔피언십에서 한국타이어를 장착하고 경기에 참가한 포뮬러 부문의 레이싱카들은 25랩 동안 완벽한 그립력과 내구성을 보이며 그 성능을 한껏 발휘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한국타이어에서 별도로 운영한 부스에서는 공식타이어로 선정된 타이어 등을 전시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올해 BAT GT 챔피언십 시리즈는 이번을 포함해 10월까지 총 7차례 열린다. 앞으로 모터스포츠계에서 한국타이어의 활약을 기대한다.

한국전지·한타 M&B 회사명, CI 교체

배터리 전문기업 한국전지가 (주)아트라스비엑스로, 한타 M&B가 주식회사 프리사로 회사명을 교체함과 동시에 새 CI를 선포했다.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 보수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도전하는 젊은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앞으로 배터리, 브레이크, 라이닝 전문기업의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하며 이들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금호타이어(주)

국내 최초 사계절용 UHP 타이어 ECSTA ASX 출시

금호타이어는 국내 업계 최초로 사계절용 UHP(Ultra High Performance) 타이어인 엑스타 ASX를 출시한다.

엑스타 ASX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사계절용 UHP타이어로 일반 UHP타이어의 성능을 만족시키면서 눈길주행능력 향상과 내마모성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타이어 트레드(지면과 닿는 부분)와 컴파운드(고무재질) 설계에 있어서 기존의 UHP타이어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면과 맞닿는 부분인 트레드 부분에서는 코너링시 차량하중이 집중되는 타이어 바깥 면의 블록 부분을 넓게 설계한 한층 진보된 비대칭 트레드 패턴을 채택하여 코너링 및 주행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컴파운드는 고분산 실리카(High Dispersible Silica)를 사용하여, 연비와 빗길 제동성능과 눈길 주행능력, 내마모성을 더욱 좋게 하였다.

금호타이어, 국내 모터스포츠 사상 첫 JGTC 진출

금호타이어는 대표적인 UHP타이어 브랜드인 ECSTA가 일본 최대 TOURING 대회인 JGTC(Japan Grand Touring Championship) 대회에 올 해부터 출전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일본 혼다 베르노도카이(HONDA BERNNO TOKAI)사와 함께 배기량 3,400cc 이상 차종만 참가할 수 있는 GT300 CLASS에 도전하게 된다.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차량은 HONDA NSX이고 타이어는 ECSTA S700을 공

급하게 된다.

ECSTA S700은 이미 美 Daytona 24, 유로GT 시리즈, 日 최대내구레이스 Super Taikyu, 등 Touring분야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바 있고, 규격은 전륜 280/680R 18, 후륜 280/710R 18 이다. JGTC는 각 라운드마다의 점수를 합하여 한 해의 최종 챔피언을 가리게 된다. 라운드마다 평균 48,000명의 관중이 들어서는 JGTC는 F1이 열리는 말레지아 세팡 경기장을 포함하여 일본내 주요 써킷을 순회하며 연간 7전을 치루고 있으며 일본내의 자동차 메이커와 타이어 메이커의 기술력의 각축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여 타이어메이커로서는 미쉐린, 브리지스톤, 던롭, 요코하마 등이 있다.

금호타이어가 JGTC에 참가하게 된 배경으로는 Marlboro Masters of F3, F3 Euro Series, 창원 F3 등 F3 부문에서는 더 이상의 경쟁사가 없을 정도의 독보적인 시장위치에 올라선 것으로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다소 미약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던 TOURING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기 위해서 진출하게 되었다.

이번 JGTC의 또 다른 진출목적은 일본 내수시장에서의 UHP타이어 매출시장을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JGTC의 진출을 기회로 삼아 철옹성 같아 침투하기 힘든 일본UHP 시장에서의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JGTC 경기의 전 라운드가 일본 전역 뿐만 아니라 EUROSPORT(유럽), SPEED CHANNEL(북미), ESPN STAR SPORTS(아시아)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홍보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보여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가치가 가일층 제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품질경영대회 4월 27일 개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4년 품질경영 대회를 오는 4월 27일 오전 8시30분 서울 신문로 그룹빌딩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품질 유통 문화 창조와 신바람니는 금호아시아나 문화 창조를 목표로 한 품질경영대회에서는 금호타이어 광주 및 광성공장 등 그룹 산하 10개 사업장에서 최우수활동 조로 선정된 품질 분임조 12개팀이 출전하였다. 시상식에서는 품질대상 1팀을 비롯 우수상 2팀, 장려상 9팀 등을 시상하게 된다. 생산왕에 선정된 금호타이어 최문휴 반장은 UHP타이어 설비 가동율을 증가시켜 생산량을 32.8%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근 주민 대상 차량무상 서비스 '고객만나기 캠페인'의 하나

금호타이어는 '고객 만나기 캠페인'의 하나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량 무상 서비스를 지난 3월19~20일 이틀 간 광주공장 정문 앞 제2주차장에서 실시했다. 타이어 안전사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다양한 차량 서비스가 제공돼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캠페인에서는 타이어밸런스 및 공기압 점검, 펑크 수리, 배터리 라이닝 브레이크페드 등 점검, 오일류 보충, 타이어 안전사용 요령 소개 외에 타이어 관련 상담 등이 있었다. 행사기간에는 공장도가격에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할인혜택이 주어졌다. 지역사회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장 인근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성장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